

미국 SAT 문항 분석을 통한 수능 언어 영역 개선 방향 탐색*

노은희** · 박기범***

〈차례〉

- I. 서론
- II. SAT 개관 및 언어 영역 검사 구성
- III. SAT 언어 영역 문항 분석
- IV. 수능 언어 영역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한계
- V. 결론

I. 서론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처음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오랜 기간 동안 수능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문항이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언어 영역에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동현, 2005 ; 김진주, 2005 ; 안이경, 2005 ; 이기봉, 2005 ;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41회 학술대회(서울교대, 2008. 12. 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 때 토론을 맡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도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oro@kice.re.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ry112@kice.re.kr

박정은, 2006 ; 진혜림, 2006 ; 최주원, 2006). 그러나 선다형으로서 수능이 갖는 근본적 제한점을 고려한 구체적 대안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우리의 수능과 유사한 선다형 시험 유형으로는 미국의 SAT와 ACT,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양대 대학입학시험인 SAT와 ACT는 수능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SAT와 ACT는 지역과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학 입학 전형 요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SAT는 구체적인 학력 성취의 측정보다는 일반적인 사고력 측정을 중시하는 데 비해, ACT는 학력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종합구상(1987)”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육적성 시험의 발전 방안이 제안되면서 박도순 외(1990), 황정규(1990) 등의 연구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SAT와 ACT의 성격을 융합한 보다 ‘발전된 학력 고사’로 수능의 성격을 정의한 바 있다.

본고는 미국의 SAT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영역 관련 문항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SAT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험이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많은 응시자를 확보하여 대학입학시험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¹⁾ 초기 우리 수능의 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사고력을 지향하는 평가의 목표가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양길석 등(2007)이 평가측정학적 측면에서 점수 체계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으나 문항 유형, 출제 경향, 난이도 등 문항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본고가 SAT 시험의 문항을 분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수능 언어 영역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AT의 시험 구성을 알아보고 언어 영역 관련 문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참고로 시험 간 응시자 수를 비교하자면, 2007년에 우리나라 수능의 경우 약 55만 명 (졸업생의 98%) 가량이 응시하였고 SAT의 경우 약 150만 명 (졸업생의 46%), ACT의 경우 약 130만 명 (졸업생의 40%)이 응시하였다.

II. SAT 개관 및 언어 영역 검사 구성

1. SAT 개관

SAT는 미국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²⁾에서 1901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후 그 명칭이나 체제가 여러 차례 바뀌어왔다. SAT가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된 1926년에는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로 불리다가 1990년에 SAT의 지적 능력 검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업사정검사(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고유명사로서 'SAT'로 지칭되면서 SAT I (Reasoning Test : 추론능력검사)과 SAT II (Subject Test : 교과학력검사)로 구분되었다. 2005년부터는 숫자 I과 II를 떼고 각각 SAT Reasoning Test와 SAT Subject Test로 부르고 있다. 수학능력을 강조하는 SAT Reasoning Test는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수학(mathematics)', '쓰기(writing)'의 세 시험으로 구성되고, 교과학력을 강조하는 SAT Subject Test는 문학, 미국사, 세계사, 수학(수준1, 수준2),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중국어, 독일어, 불어, 현대 히브리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라틴어, 스페인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SAT 시험에서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하위 과목으로는 SAT Reasoning Test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 SAT Subject Test의 '문학' 정도가 될 것이다.

다시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한 SAT 시험 체제의 최근 변화를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SAT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의 교육적 변화를 수용하여 1994년부터 추론능력검사인 SAT I, 교과학력검사인 SAT II로 개편하였다. 그러면서 언어 영역은 '비판적 읽기'를 강화하고 긴 지문을 추가하였으며 종전의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났다. 이는 읽기

2) SAT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대학위원회가 소유하면서 개발과 발행을 맡고 있다. 한때 미국대학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과 발행 및 채점 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ETS에서는 시험 관리만 맡고 있다.

능력이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 뒤 2004년부터 SAT I을 SAT Reasoning Test로, SAT II를 SAT Subject Test로 바꾸면서 다시 문항 수도 조정하였다.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새 SAT는 글쓰기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에세이 ‘쓰기’를 추가하고, ‘비판적 읽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1994년에 SAT II의 선택 과목 중의 하나로 처음 소개된 ‘쓰기’ 영역은 많은 대학의 요구에 따라 2005년에는 SAT Reasoning Test의 필수 과목으로 제시되었다. <표 1>은 SAT Reasoning Test 중에서 언어 영역과 연관된 검사의 개략적인 변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SAT Reasoning Test의 언어 영역 변천

연도 하위 영역	1958~1974	1974~1978	1978~1994	1994~2004	2004~현재
반의어	18문항	20문항	25문항	.	.
유추	19문항	20문항	20문항	19문항	.
문장 완성	18문항	15문항	15문항	19문항	19문항
독해	35문항 7개 지문	25문항 5개 지문	25문항 6개 지문	.	.
비판적 읽기 (문장 완성 제외)	.	.	.	40문항 4개 지문	48문항 7개 지문
에세이 쓰기	1문항 1개 지문
선다형 쓰기	49문항
전체 문항 수	90	85	85	78	117
전체 검사시간	75분	60분	60분	75분	130분

2. SAT 언어 영역 검사 구성

2-1. SAT Reasoning Test

1)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비판적 읽기’ 영역은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SAT Reasoning Test에서 3개의 섹션을 차지한다.³⁾ 시험 시간이 25분 주어지는 섹션이 두 개, 20분이 주어지는 섹션이 한 개이며, 25분짜리 섹션에는 24개씩의 선다형 문항이, 20분짜리 섹션에는 19개의 선다형 문항이 제시된다. 비판적 읽기 영역은 최하 200점에서 최고 800점의 배점으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설명한 비판적 읽기 영역의 구성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비판적 읽기 영역의 문항 구성 체계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총합
시간		25 분	25 분	20 분	70 분
유형	문장 완성	8문항	5문항	6문항	19문항
	지문독해 (단어 수)	언어(100)-2문항 예술(100)-2문항 인문(800)-1문항	인문(100+100) -4문항 소설(400)-6문항 과학(550)-9문항	사회(450+400) -13문항	2개 복합지문 +5개 단독지문 -48문항
문항 합계		3개 단독지문 -16문항	1개 복합지문 +2개 단독지문 -19문항	1개 복합지문 -13문항	
문항 합계		24문항	24문항	19문항	67문항

비판적 읽기 영역의 문항들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SAT Reasoning Test는 비판적 읽기 영역 3개 섹션과 함께 쓰기 영역이 3개, 수학 영역이 3개, 사진 예비 검사 영역이 1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순서는 시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개의 영역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표 2>는 미국대학협의회(College Board)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시험에서는 매회 약간씩 지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 문장 완성(Sentence Completion) 문항들이다. 문장 완성 문항은 어휘력과 문장의 논리적 구성력을 측정한다.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빈 곳에 어떤 어휘가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과 주어진 문장의 논리 전개 상 가장 적합한 어휘를 묻는 문항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⁴⁾

논쟁이 _____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협상가들은 그들이 노동자와 경영자 둘 다 _____ 느낄 수 있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 | | |
|-----------------|-----------------|
| (a) 강화—유용하게 | (b) 종결—불화를 일으키게 |
| (c) 극복—시시하게 | (d) 심화—만족하게 |
| (e) 해결—받아들일 만하게 | |

이러한 문장 완성 문항은 쉬운 문항부터 점차 어려운 문항으로 배열된다. 대개 이 유형은 하나 혹은 두 단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데, 문장의 논리, 문체, 이조 등을 파악하여 그 문맥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문 독해(Passage-based Reading) 문항은 약 100개에서 850개 단어로 된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읽고 주의 깊게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지문은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소설 등에서 가져오는데, 다양한 문체의 서사, 논증, 설명적인 글을 포함한다. 때때로 한 화제나 주제와 관련된 몇 개의 지문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에게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도록 한다. 지문 독해 문항들은 문맥 속에 적합한 어휘를 선정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폭넓게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SAT 문항을 예로 들 때, 영어 원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으며, 정답은 해당 기호를 굵게 표시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위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 그 동물은 마치 헤엄을 치는 것처럼 반짝거렸어.” 후 시양구양은 회상한다. 1984년 청지양의 중국인 마을의 근처에서 고생물학 대학원생인 후는 바위를 탐색하는 동안 낯선 화석을 발견했다. “나의 선생님은 항상 버지스(Burgess) 혈암 동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 그게 그것들 중 하나처럼 보였어. 내 손은 흔들리기 시작했어.” 후는 정말 캐나다의 그들처럼 나라오이아(Naraoia)를 발견했다. 그러나 후의 동물은 캐나다의 비교대상보다도 1500만 년 더 오래된 것이었다.

- ▷ 왜 후 시양구양의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 화석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 그의 발견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해서
 - 그의 작업이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 화석의 진정성에 관해 불확실하게 여겨서
 - 그의 발견의 중대성에 대해 흥분해서

지문 독해 문항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 문항이 배열되며 대체로 짧은 지문부터 점차 긴 지문이 제시된다. 지문 독해 문항의 각 지문은 대개 제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출전 등을 밝히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은 각주를 통해 설명을 해준다. 또한 지문의 소재들은 음악, 예술, 과학, 문학, 역사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가져오며, 문항은 일반적인 지식과 영어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풀 수 있다. 소설 지문의 경우 장편소설, 단편소설, 자서전, 개인적 에세이에 관한 글이 있는 반면 시나 희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SAT Subject Test의 ‘문학’ 과목 시험에서 다루어진다.

2) 쓰기(Writing)

‘쓰기’ 영역은 3개의 섹션으로 되어있다. 시험 시간이 25분 주어지는

섹션이 두 개, 10분이 주어지는 섹션이 한 개이며, 하나의 25분짜리 섹션에는 1개의 에세이 문항이, 또 다른 25분짜리 섹션에는 35개의 선다형 문항이, 나머지 10분짜리 섹션에는 14개의 선다형 문항이 제시된다. 쓰기 영역도 최하 200점에서 최고 800점의 배점으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설명한 쓰기 영역의 구성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쓰기 영역의 문항 구성 체계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총합
시간		25분	25분	10분	60분
유형	에세이 쓰기	1문항			1문항
	문장 오류 찾기		18문항		18문항
	문장 발전시키기		11문항	14문항	25문항
	단락 발전시키기		6문항		6문항
문항 합계		1문항	35문항	14문항	50문항

쓰기 영역의 문항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에세이와 같은 서술식 문항 한 유형과 선다형 세 유형이 이에 속한다.

첫째, **에세이 쓰기**는 특정 논제나 이슈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25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최고 수준의 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에세이 쓰기는 SAT Reasoning Test의 첫 섹션에 배치된다. 에세이 쓰기 문항은 제시된 논제나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발전시키는 능력과 독서, 경험, 관찰 등에서 나온 예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잘 따르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에세이 쓰기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다음에 주어진 주제(화제)에 관한 에세이를 25분 동안 작성하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에 이르는 사다리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억누르며,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오래된 기억들을 과거와 청산하는 기회로서 삼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으로 여긴다.

–사라 로렌스 라이트풋,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 : 상실과 해방의 삶〉 중에서

▷ 기억들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배우도록, 그리고 현재에서도 계승하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발전 시켜 한 편의 에세이를 계획하여 써보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자신의 독서, 공부, 경험, 관찰에 근거하여 예시를 들어라.

한편, 에세이의 채점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능숙한 교원들이 담당한다. 각 채점자들은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⁵⁾

0점-백지 제출. 주제와 무관

1점-관점이 없음. 엉망인 문장 구성. 상당한 문법적 오류

2점-미약한 논리 전개. 불충분 혹은 부적절한 사례. 문장 구조에 잦은 문제

3점-그려저려 논리 전개했으나 글 구성과 초점이 허약. 다수의 문법적 실수

5) Perelman에 따르면, 50개의 에세이를 본 결과 에세이를 계획하고 수정할 시간을 주지 못함으로써 실제 쓰기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편집과 수정은 중요한 글쓰기 능력인데 에세이 쓰기는 이를 다루지 못한다. 또한 평가상의 문제도 제기한다. 초고 수준에서 전체적인 에세이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류가 발견되면 아무래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onawar, 2005에서 재인용).

4점-주장을 뒷받침할 관점 제시.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논리 전개

5점-강한 논리 전개. 잘 짜이고 초점이 분명

6점-뛰어나고 분명하며 일관된 논리 전개, 얹어의 술달림 사용

둘째, 문장 오류 찾기(Identifying Sentence Error)를 들 수 있다. 문장 오류 찾기 문항은 어법상의 오류를 인식하는 능력,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따라 효과적인 문장을 인지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other delegates and him immediately accepted the resolution

drafted by the neutral states. No error
D E

셋째, 문장 발전시키기(Improving Sentences)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문항은 어법과 문장 구조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고치는 능력,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에 따라 효과적인 문장을 인지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로라 잉갈즈 와일더는 그녀의 첫 번째 저서를 그녀가 예순 다섯 살 때 출간했다.

and she was sixty-five years old then

- (a) and she was sixty-five years old then
 - (b)** when she was sixty-five
 - (c) at age sixty-five years old
 - (d) upon the reaching of sixty-five years
 - (e) at the time when she was sixty-five

넷째, 단락 발전시키기(Improving Paragraphs)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의 문항은 한 단락 혹은 한 편의 글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문장들을 수정하고 편집하는 능력, 일관성 있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단락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표준 문어체 영어의 관습을 적용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화 <레이디스>의 한 장면에서, 악당 고고학자 벨로크는 영웅적인 인디아나 존스에게 싸구려 손목시계 하나를 보여준다. (2) 벨로크는 만일 그 시계가 사막에서 천 년 동안 묻혀 있다가 발굴된다면 그것은 매우 값비싸게 여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3) 나는 현상을 담는, 즉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그것이 되고 있는, 한 획을 그을 만한 레코드 앨범(음반)을 생각할 때마다 영화의 그 장면을 떠올린다. (4) 레코드 앨범을 모으는 것은 우리에게 저비용의 투자로 미래에 큰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맥상 첫 단락의 세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정은?

- (a) 서두에 “사실은”을 넣는다.
- (b) “그것이 되고 있는”을 뺀다.
- (c) “장면”을 뺀다.
- (d) 콤마를 세미콜론으로 바꾼다.
- (e) “생각할 때마다”를 “생각했을 때마다”로, “떠올린다”를 “떠올렸다”로 바꾼다.

이상과 같이 SAT의 ‘쓰기’ 영역에는 선다형 문항과 함께 에세이 쓰기 활동이 포함된다. SAT에서 실시하는 에세이 쓰기는 총체적인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쓰기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SAT에 에세이 쓰기가 따로 있는 대신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선다형 문항은 고쳐 쓰기 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문장 오류 찾

기나 표준 영어 사용에 초점을 두어 단어, 문장, 단락 수준의 고쳐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⁶⁾

2-2. SAT Subject Test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입학 사정을 위해 한 과목 이상의 SAT Subject Test를 요구하고 있다. SAT Subject Test는 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특정 학업 과목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선다형 문항들로 되어 있다. SAT Subject Test는 문학, 역사,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의 크게 다섯 개 과목군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학교로부터 교육받아온 지원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SAT Subject Test는 해당 과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첨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⁷⁾ 본고에서는 수능 언어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⁸⁾

6) Honawar(2005)에 따르면 UC계 대학에서는 SAT ‘쓰기’를 점수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도 실제 쓰기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대학위원회에서는 400개 이상의 대학에서 다음 입시에 쓰기 검시를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쓰기를 반영한 대학에서는 입학 후에도 대학에서의 보충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데 쓰기 영역의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입학 자료로서 추가되는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 ACT도 쓰기를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다.

7) Geiser & Studley(2002)는 대학에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예언 타당도 측면에서 적성 시험에 가까운 SAT I과 성취도 시험에 가까운 SAT II 시험을 비교한 결과, SAT II 시험이 예언 타당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Atkinson 총장은 대학에서 적성 시험보다는 특정 교과 영역의 숙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시험의 사용을 권장하며, 대학 입시에서 SAT I 시험의 사용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SAT I에 ‘에세이 쓰기’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UC계 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입학 사정에서 SAT II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ech, 2007). 요컨대, SAT Reasoning Test와 SAT Subject Test 중 어느 검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이는 대학 입학 사정 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미국 대학의 전통적인 배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8) ‘문학’은 SAT Subject Test의 과목별 시험 중 하나로, SAT Reasoning Test의 비판적 읽기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수능의 언어 영역은 읽기 영역을 문학과 비문학

1) 문학(Literature)

SAT Subject Test 중에서 ‘문학’은 총 60분 동안 6~8개의 지문과 그에 딸린 60개의 선다형 문항을 풀도록 구성되어 있다. 배점은 최하 200점에서 최고 800점으로 주어진다. ‘문학’ 시험에서 제시되는 지문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고유한 영어로 창작된 작품에서 인용되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문학 지문의 구성 비율

지역	비율(%)	연대	비율(%)	칼래	비율(%)
영국 문학	40~50	르네상스~17세기	30	시가	40~50
미국 문학	40~50	18~19세기	30	산문	40~50
기타 영어권 문학	0~10	20세기	40	극/기타	0~10

문학 시험의 지문과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제 5-9] 다음 시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 1850년에 창작된 시의 일부 – ※생략함>

5. 지문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 (a) 젊은 시절의 낙천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축하
- (b) 풍자적인 관망에 의해 채색된 반어적인 자화상
- (c) 다다이즘적인 의도가 없는 상상적인 환기
- (d) 지적인 창조력의 상징적 표현
- (e) 철학적인 암시로 된 서사적 에피소드

6. 1-7행에서 현재의 본성, 배, 메아리에 사용된 문학적 기법은?

- (a) 의인법 (b) 돈호법 (c) 리듬 (d) 역설 (e) 직유

으로 크게 대별하고 문학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7. 6-7행에서, “목소리 / 산울림”은 화자의 어떤 감정을 강화하는가?
 (a) 자유 (b) 전능함 (c) 은밀함 (d) 열정 (e) 의존심
8.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대한 봉우리”는 화자에게 무엇을 표상하는가?
 (a)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징물
 (b) 정의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의미의 구상체
 (c) 죄악 자체의 알레고리적인 형상화
 (d) 호기심어린 자연 현상
 (e) 화자의 상상에 대한 사소한 가공물
9. 이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의 시선이 바뀐 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은?
 (a) 천진난만함에서 냉소로 (b) 용기에서 겁쟁이로 (c) 희망에서 절망
 (d) 대담함에서 믿을 수 없음으로 (e) 열심에서 게으름으로

SAT ‘문학’ 시험은 문학 작품의 해석적 능력을 측정하며,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위주의 문항이 많다. 주로 평가하는 항목은 의미(주제, 전반적인 효과와 논점), 형식(구조, 갈래, 조직), 서사 양태(화자의 특성, 화자와 필자의 차별적 특성, 화자의 태도나 어조), 묘사된 성격(인물의 변별적 특성), 개성적인 언어 사용(어휘 선택, 이미지, 비유적 표현, 말투), 문맥적 의미(단락이나 시 작품 안에서의 세부적인 어휘, 구절, 행)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전과 현대 문학 작품의 비율이 6대 4 정도로 고전 문학 작품이 좀 더 많으며, 지문으로 제시된 작품들은 출전과 함께 원래의 발표 혹은 창작 시기가 명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III. SAT 언어 영역 문항 분석

수능 언어 영역의 난이도와 타당도를 점검하려는 취지의 한 방편으로 미국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언어 영역 해당 문항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검사의 성격과 시행 방법 및 제반 환경이 서로 달라 동일한 준거와 수준에 대하여 엄격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수능과 유사한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평가 목표 및 요소, 문항 유형, 지문·문두·답지의 형식과 수준, 난이도 및 예상 정답률에 관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항 분석의 준거를 마련해 보았다.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SAT 문항 분석의 준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SAT 문항 분석의 준거

준거	내용
(1) 지문 내용	지문이 다루는 분야와 소재는 무엇인가? 지문의 수준이나 난이도는 적정한가?
(2) 문항 배열	지문에 배당된 문항 수는 적정한가? 문항 간 배열은 내용상, 형식상 적정한가?
(3) 문항의 평가 목표 및 난이도	행동영역에 비추어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력은 무엇인가? 문항의 예상정답률은 어느 정도인가?
(4) 문두와 답지	문두는 적정하게 문항을 안내하고 있는가? 문두 길이는 적정한가? 답지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매력적인 오답이 적정하게 있는가? 답지 길이는 적정한가?
(5) 문항 완성도	문항의 형식적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
(6) 문항 참신성	수능에 참조할 만한 참신한 점이 있는가?

SAT 문항 분석에는 시험주관기관인 미국대학협의회(College Board)에서 2005년 출간된 『The Official SAT Study Guide』 시리즈에서 1회분의 모의

고사 문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항 분석을 위해 8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가졌다.⁹⁾

1. SAT Reasoning Test

1)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비판적 읽기 영역의 문항 유형 가운데 문장 완성 문항은 수능 언어 영역에는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문 독해 문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문은 언어, 예술, 인문, 과학, 사회, 소설 등 여러 분야의 글들이 제시되는데 짧은 것은 100단어부터 긴 것은 800단어까지 되는 지문이 있으며 한 세트에 두 개의 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지문에는 다수의 문항이 떨리는데, 짧은 지문에는 2문항이, 긴 지문에는 13문항이 제시된다. 여기서는 분량의 문제로 각 분야를 모두 소개하기보다는 난이도와 길이를 고려하여 쉽고 짧은 지문과 어렵고 긴 지문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문항을 예시하고자 한다.

9) SAT 출제 체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므로 실제 사용된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실제 SAT 문항을 가지고 수능 문항과 양적(量的) 비교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SAT는 난이도, 유형, 평가요소 등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의 문항이 유사하고 매회 그 구성적 특성이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미국대학협의회에서 출간한 책에서 모의고사 1회분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SAT 문항 분석의 준거를 마련하고 실제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계영(구로고), 김복희(장영실과학고), 김은정(무학여고), 유명은(영신고), 이기봉(청심국제고), 이도영(춘천교대), 최미숙(상명대), 태선경(창문여고) 선생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 ‘과학’ 지문 문항 분석

[문제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지문1

과학자들은 돌고래의 지능에 관해 자세히 연구하였다. 돌고래는 언어 기호를 이해할 수 있고 퍼즐을 풀 수 있으며 환경 속의 사물을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또한 돌고래가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돌고래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존재한다. 최근의 실험에서 돌고래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극히 일부의 동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돌고래는 그들 각자의 개별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수준의 지능을 지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지문2

돌고래는 과연 지능이 뛰어난 것일까? 돌고래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두뇌의 크기는 지능의 본질이나 범위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어떤 연구자는 돌고래의 큰 뇌가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음파와 음속,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위해서 말이다. 다른 연구자는 뇌의 크기에 상관없이, 돌고래의 지능은 개와 침팬지 사이의 어디쯤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비교가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지능이 인간의 필요에 알맞은 것처럼 돌고래의 지능 역시 그들의 생활 방식에 꼭 맞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돌고래의 지능이 보통 동물과 다르다는 점이다.

9. 1행에서 4행 사이에서 지문1의 필자는 돌고래가 _____는 것을 암시하는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대체로 환경에 민감하다.
 - 사로잡히게 되면 대체로 번성하지 못 한다.
 - 독특한 타입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 매우 활동적인 동물이다.
 - 대체로 인간과 연관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 지문2의 필자는 지문1의 마지막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 (a) 동물의 지능은 결국 측정 불가능하다.
 - (b) 지능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c) 기존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된다.
 - (d) 돌고래의 활동에 높은 수준의 지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e) 돌고래의 사회적 행동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1. 지문1이 돌고래가 _____ 는 점에서 이 두 글은 돌고래의 지능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지닌다.
- (a) 세련된 문화를 공유한다고 말하는 반면 지문2는 돌고래의 지능이 크게 보았을 때 인간의 지능과 같다고 논의한다.
 - (b) 인간만큼이나 지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지문2는 돌고래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한다.
 - (c)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보다 더 지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지문2는 다른 포유류들이 돌고래보다 더 지적이라고 지적한다.
 - (d) 대단히 지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지문2는 돌고래의 지능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e) 큰 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지문2는 뇌의 크기가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논의한다.
12. 돌고래에 관한 다음의 일반적 진술 중 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a) 돌고래는 자의식을 과시한다.
 - (b) 돌고래는 다른 동물보다 감정이 풍부하다.
 - (c) 돌고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배운다.
 - (d) 돌고래는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 (e) 돌고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문항 설계를 보면, 돌고래의 지능에 관한 상반된 관점의 두 글을 제시한 후 두 글의 관계, 필자의 입장 차이,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공통된 전제 찾기 등을 묻고 있다. 글이 짧고 논리가 간단하여 독해에 큰 어려움

은 없으나 두 글을 관련지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 된다.

9번 문항의 평가 목표는 1행~4행에서 진술된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것으로 구체적 진술을 일반적 진술로 추상화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런데 제시된 지문의 마지막 문장(핵심문장)이 답지 중 정답과 일치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 문두와 답지를 보면, 의문문 형식 대신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문에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몇 행에서 몇 행까지’의 식으로 제시되어 지문의 독해가 큰 흐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듯한 오답이 없어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10번 문항은 상반된 두 글의 필자의 관점을 파악한 후 한 쪽 필자의 입장에서 다른 쪽 필자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글의 상반된 관점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하기에 앞서의 문항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독해가 요구된다.

11번 문항은 동일한 제재에 대한 필자의 상반된 관점을 요약해 낼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요약 능력이 세부 정보를 추상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때 이 문항은 앞서 두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12번 문항은 상반된 관점의 두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독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추론과 재구성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4개 문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답자들이 지나치게 평이하여 난이도가 떨어졌다. 이 지문에서 유일하게 의문형 문항을 취하고 있다.

◆ ‘인문’ 지문 문항 분석

[문제 1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이 1987년에 쓴 소론의 일부로 지난 미국 역사 속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묘사를 고찰한 것이다.

생존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350년 전 “Pilgrim settlers(1620년 메이플라워호로 도미한 영국 청교도단)”에게 그러하였듯, 여러 면에서 20세기 말의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고 이국적이며 불가해한 존재로 남아있다. 원주민으로서의 권리, 목적, 관습, 언어, 염원들은 유로-아메리칸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무지함 때문에 오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비주의에 의해 고무되고, 이성적이지 않은 불가해한 시각으로 채운다(charged)고 생각하는 유럽인 또는 유로-아메리칸 사상가들에게 그들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여기는 오랜 경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루소의 “송고한 미개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원시 시대를 둘러본 것이었다. 원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파악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사회는 종종 흐린 시선을 통해 보이게 되었고, 흔히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문화를 위해 제한된 연역적인 분석과 논리라는 도구에 의해서 겨우 조사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포괄적 이론으로 공식화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을 인간 대 인간의 체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선조-후손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을 고대의 사람들로 여기고 석기 시대의 유럽인들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로 세계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겠지만, 한 가지 약점(difficulty)이 있다 :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현생 인류)이다. 그들은 비록 삽 모양의 앞니, 둥고 주름 가득한 눈, 또는 끝이 뾰족하게 덧붙은 어금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난 4천 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었다. 그들의 문화는 본질적인 이해력을 생성했고, 그들의 약(의학)은 꾸준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용했으며, 그들의 철학적 설명은 합리적으로 충족되고 신뢰되었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이라 불리는 이들의 조상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듯 명료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서양이 과학, 논리, 지혜를 독점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관한 관점이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통제의 중심인 유대교-기독교의 믿음 : 모든 것에는 하나님

이 존재한다—신, 정의, 진실—는 것과 유럽인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실용적이라고 여겼다면, 유럽 사회는 배타적인 조직이 되지 않고 조금 열등한 문화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약간 놀라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 자체로서 인식되지 않고 유럽인들의 시각에 맞춰 인식된 것이다.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체계가 아닌 불가해한 힘을 다루었고, 과학,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과거에 얹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략적인 오해는 원주민들의 역사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유럽과 접촉 전까지 문맹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다. 같은 연대에 이와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해 줄만한 문서는 유럽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부족들의 이용 가능한 보존 기록(구술 역사, 설화, 연상물, 종교적 관습)들은 대학 교육 수준의 학문에서는 부정확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며 탐탁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지식에 대한 자신들만의 접근으로 문화권을 제한한 서양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를 제외하고는 아메리칸 원주민 삶의 초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변론할 것이다. 그들에겐 절대적인 결핍이 경험에서 나온 추측보다 더 받아들이기 쉽고 정밀한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어떤 문화의 역사가 주관적 편견 없이 인식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고지식한 일이다. 모든 현대의 평론가, 그 또는 그녀가 남태평양의 전통, 하노버의 자이르, 뉴햄프셔, 또는 비엔나, 오스트리아 그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간에, 유년기에 한 가지 이상의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민속을 접했을 것이다. 일부에게는, 그들을 당초에 미국사 분야로 진출하게 하였던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에 대한 첫 인상들이, 유명한 전설이나 고정 관념에 바탕을 둔 견해들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진지한 학문은 독특해서 초기의 왜곡된 신화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은 영점이 아닌 더 한 악조건, 마이너스 영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영웅들 혹은 악당들에 대한 환상을 잊어야 한다.

13. “청교도단”에 대한 조회는 _____에 이용된다.
- (a) 덜 복잡한 시대에 관해 회상하도록 하는 데
 - (b) 종교적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성을 제안하는 데
 - (c) 오늘날의 개혁자들과 대조를 하는 데
 - (d) 초창기 식민지 생활에 관한 신화를 벗기는 데
 - (e)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하는 데
14. 7행의 “채운다(charged)”와 가장 가까운 의미는 _____이다.
- (a) 명령하다 (b) 지시하다 (c) 보충하다 (d) 고무하다 (e) 공격하다
17. 21행의 “약점(difficulty)”이 가장 직접적으로 _____을/를 허물고 있다.
- (a) 유럽 관찰자들에 의해 사용된 선조-후손 모델
 - (b) 인류학적 연구에서 합의의 가능성
 - (c) 잘못된 전형의 대중문화를 제거하려는 노력
 - (d)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에 전적으로 터하는 이론
 - (e) 초창기 유럽 식민지에 관한 발견되지 않은 믿음
18. 25행의 “그들의 문화는 ~ 작용했으며”는 _____에 대해 서술하였다.
- (a) 한 사회의 화석화된 신화에 관한 관습
 - (b) 해결할 수 없는 관습적인 논리에 관한 반박
 - (c)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특징
 - (d) 서구 역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문화를 평가할 때 사용한 준거
 - (e) 문화 이전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 조건
22. 마지막 단락 3~4행의 지리적 내용은 _____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 (a) 미국의 바깥에서 가졌던 원주민 아메리칸에게 주는 영향
 - (b) 학문적 훈련이 증가하는 균종화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논증
 - (c) 원주민 아메리칸에 관한 확실한 견해에 대한 보편타당성
 - (d) 원주민 아메리칸이 알려진 것보다 더 공통점이 많다는 것에 대한 생각

(e) 원주민 아메리칸의 역사에 대해 학자들이 그들의 차이를 결론지 을 것에 대한 가망 없음

지문은 인문 분야의 글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왜곡되어 있으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지문은 길며, 내용의 수준은 고등학생이 주의 깊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 정도다. 지문에 딸린 문항 수는 12문항으로 지문의 논리적 밀도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나 지문의 길이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은 수능 언어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수능의 지문이 시험을 위해 출제자들이 참고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재구성한 글이라면 이 지문은 1987년에 쓰인 글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실제적 글 읽기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글을 읽은 경험 유무가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문항 설계는 세부 내용 추론 6문항, 구절 이해 4문항, 단어의 문맥적 의미 2문항으로 배열되었다. 수능에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 없고, 문항의 구조와 답지의 구조도 단순하게 제시되어 <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문의 부분을 지시할 때, 수능에서는 기호를 사용하는 반면, 이 지문에서는 몇 행의 무슨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 12개의 문항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개의 문항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번 문항은 세부 정보가 제시된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필자가 전체 주장을 위해 세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의도를 추론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추론은 수능에서 나타나는 전체 주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세부의 문맥적 의미를 중심으로 추론하고 있어서, 사실적 이해와 추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두는 수능과 달리 의문문 형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평서문을 완성시키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답지도 수능과 달리 형식적인 통일성을 없으며, 배열의 특별한 규칙도 찾아보기 어렵다. 매력적 오답은 지문에 나오는 단어와 유사

한 의미의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 있는 정도로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14번 문항은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능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의 문항이다. 단어의 여러 의미 중에서 문맥에 가장 유사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글의 내용적 흐름과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문두와 답지 역시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다.

17번 문항은 지문에서 제시된 관점이 이 지문에 나타난 어떤 견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인지 추론하는 문항이다. 여러 주장 속에서 관점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이 매력도가 높은 오답지가 배치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항은 문두와 답지가 수능에서 보기 어려운 문항이다.

18번 문항은 어떤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므로 세부 정보의 확인이 평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해결 단서가 구절의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다. 중요한 주제 문단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문단에서 16, 17, 18번 문항이 연속하여 출제된 점은 수능과 다르다. 이 점은 문항 간의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섭에 대해서 우리처럼 엄격하게 고려하지는 않는다 는 점을 시사한다.

22번 문항은 지문의 한 부분에서 사용된 진술 방식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세부 정보의 추론에 해당한다. 이 문항에서 지칭하는 구절은 진술 방식이 특이한 부분으로 수능이라면 진술 방식과 그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문항은 결국은 지문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 이해로 귀결되도록 문항이 설계되어 있다. 즉 문항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문의 부분 이해와 그에 기초하여 전체 구조와의 연관성을 묻는 문항,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몇 문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국어 화자라면 높은 점수를 받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쓰기(Writing)

◆ 문장 오류 찾기

한 개의 섹션에서 18개 문항이 제시되는 문장 오류 찾기 유형의 문항 들 가운데 여기서는 1개의 문항 분석을 예로 제시하였다.

▷지시 : 다음은 문법과 그 쓰임이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장들이다. 각 문장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거나 전혀 없다. 하나 이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문장은 없다. 문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할 밑줄 친 부분을 고르시오. 문장이 올바르다면 E를 고르시오. 답을 선택할 때에는 표준 문어 영어의 원칙을 따르시오.

문장의 구조와 각 요소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고칠 필요 없음' 답지가 포함되어 처음부터 고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문항보다 난이도가 높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밑줄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다른 부분과 관련지었을 때 오류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문항별 문두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 대신 지시 사항이 길고 자세하다. 문항과 답지가 일체화된 경우인데 수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문항과 답지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수능 시험과는 다른 유형으로서 어렵 문항을 묻기에는 적절한 형식이라 생각된다. 문항 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수능보다 문법 관련 문항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의 형식을 달리해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 문장 발전시키기

두 개의 섹션에서 각각 11개, 14개 문항이 제시되는 문장 발전시키기 유형의 문항들 가운데 여기서는 수능과 차별적 특성을 지닌 문항을 예시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지시 : 다음의 문장들은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를 묻는 것들이다. 각 문장의 부분 혹은 전체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다. 각 문장의 아래에는 밑줄 친 부분을 다섯 가지로 서술해 놓았다. (a)는 원래의 구절을 그대로 써 놓았다. 다른 네 가지는 다르다. 만약 당신이 다른 네 가지의 변형보다 원래 구절이 더 낫다고 생각되면 (a)를 고르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오.

답을 고를 때에는 표준 문어체 영어의 법칙에 따르시오. 문법과 단어의 선택, 문장 구조, 구두점에 유의하시오. 선택의 결과로 명확하고 간결하며 어색함이나 모호함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

8. The primatologist has argued that sustained observation of a few animals provides better behavioral data than does intermittent observation of many animals.
- (a) provides better behavioral data than does intermittent observation of many animals.
 - (b) provides better behavioral data than many animals are observed intermittently.
 - (c) providing better behavioral data than does intermittent observation of many animals.
 - (d) do provide better behavioral data than intermittent observation of many animals do.
 - (e) in contrast to intermittent observation of many animals, provides better behavioral data.

비교급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빠진 문법 요소를 보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법 문제이다. 이 문항의 경우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고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고쳐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문항보다 난이도가 높다. 잘못된 문장임을 전제로 하고 풀이를 하는 것보다 문장의 적절성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이 더 고차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앞의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장 발전시키기 유형만 하나의 섹션을 차지하기도 한다. 문법의 정확한 쓰임을 묻는 문항이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수능에서는 쓰기 영역의 경우 글 조직하기, 문장의 적절성, 어휘·어법의 적절성 등을 한 문항에서 통합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SAT에서는 일관되게 한 문항에서 하나의 요소만을 측정한다.

◆ 단락 발전시키기

한 섹션에 총 6개의 문항이 제시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4개 문항에 관한 분석을 제시한다.

▷지시 : 아래 글은 어떤 에세이의 초고이다. 이 글의 어떤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글을 읽은 후 제시되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어떤 질문은 특정한 문장이나 문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며 문장의 구조와 어휘를 더 낫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질문은 글 전체의 조직과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다. 답을 선택할 때에는 표준 문어체 영어의 원칙을 따르시오.

[문제 3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많은 사람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이 만들어내는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2) 그 러나 실제로 어떤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할까? (3) 그들의 목적은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4) 명백히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다. (5)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면 그것은 아무 문제없다. (6) 나는 이제 충분히 투표할 만한 나이가 되었기에 예 후보자의 성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다.

(7) 그러나 네거티브 전략에는 ‘추잡함(sleaze)’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것들이 있다. (8) 추잡한 후보자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상대 후보에게 먹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를 이끈다. (9) 그것은 너무도 흔해져서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10) 가장 더러운 선거에서는 인격 살인이라든가 상대 후보에 대한 뻔한 거짓말과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 (11) 거짓말을 퍼뜨리는 실제 행동은 선거 도우미들이 자행한다. (12) 그리고 후보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13) 반면에 어떤 사람의 명예는 그 거짓말을 듣고도 사실을 우선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추된다. (14) 언론은 거짓말을 보도하고, 뉴스 가치가 있었기에 그랬다고 말한다. (15) 그래서 언론은 악순환에 기여한다. 뉴스 가치가 있었기에 그랬다고 말한다.

30. 문맥상 (1)에는 다음 중 어떤 수정이 적절한가?(아래에 다시 제시함)

Many people complain about the negative statements made by candidates that are arising during political campaigns.

- (a) ‘people’을 삭제
- (b) ‘complain’을 ‘complained’로 교체
- (c) ‘are arising’을 ‘is raised’로 교체
- (d) ‘that are arising’을 삭제
- (e) ‘during’ 다음에 ‘the course of’를 삽입

32. 문맥상 (9)에서 ‘It’를 가장 논리적으로 다른 단어로 교체한다면?(아래에 다시 제시함)

It has become so common that it is almost taken for granted.

- (a) This strategy
- (b) This lack of planning
- (c) This complaint

- (d) This lie
- (e) This promise

33. (6)은 어떻게 해야 할까?(아래 다시 제시함)

Now that I am almost old enough to vote, I pay more attention to the character of candidates.

- (a) 그대로
- (b) 삭제
- (c) ‘그래서(Consequently)’를 글 처음에 삽입(d)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보다’를 마지막에 덧붙임
- (e) ‘Shouldn’t I pay’로 시작하는 문장을 새로 씀

35. (15) 다음에 덧붙이는 결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이러한 전략들이 불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b) 이러한 제약이 심하게 강화된다면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제할 것이다.
- (c) 결론적으로 언론은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
- (d) 그래서 캠페인 비용이 많이 들어도 우리는 더 나아질 만하다.
- (e)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정치 캠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할 뿐이다.

문항 설계를 볼 때, 수정이 필요한 어색한 문장이 섞인 중간 길이의 지문을 제시한 후 문맥에 맞게 문장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자연스럽게 고치거나, 전체 맥락에 비추어 생략·수정할 수 있는지, 글의 완결성을 위하여 필요한 문장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수능의 고쳐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측정하려는 능력이 유사하다.

30번 문항은 문장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간결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고쳐야 할 문장을 문두에서 한 번 제시하고(문장 1), 문항과 답지 사이에 한 번 더 제시하였다. 지문과 답지를 번갈아가며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른 쓰기 영역의 선다형 문항에는 수정이 필요 없다는 ‘그대로’도 답지에 포함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문장을 수정할 것을 전제로 답지를 구성하였다. 답지의 내용은 성분을 생략, 시제의 교체,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교체, 구절의 삽입 등으로 문항을 문법과 어법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도록 하고 있다. 수능에서는 쓰기나 어휘 어법에서 지문이 활용되어도 딸림 문항이 2개 정도가 최대이나 SAT에서는 6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지문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32번 문항은 문맥을 고려하여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앞뒤 문맥에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기에 난이도는 낮다고 생각된다. 수능이라면 기호를 사용하여 아주 간단히 구성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장 번호를 한 번 언급하고, 답지 앞에서 한 번 더 문장을 제시하였다.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서 답을 고르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 대명사가 지시하는 바를 단독으로 묻는 문항은 수능에 거의 없다.

33번 문항은 글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답지의 배열이 평이하여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30~32 번 문항은 측정하려는 능력이 거의 유사한 문항이지만 묻는 방식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다채로움을 위해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수능 시험에서라면 이 세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된 문두 하나만을 놓고 기호를 최대한 사용하여 한 눈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만든다. 수정이 필요 없는 ‘그대로’를 답지로 포함하였고 문법적 오류를 정정하려는 답지는 없어서 표현상의 효과만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5번 문항은 단락의 결론 문장을 문맥에 맞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결론 문장의 기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앞 문장들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판단해야 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답지의 길이를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편이며 그럴듯한 오답이 포함되어 있다.

IV. 수능 언어 영역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한계

첫째, 지문과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 읽기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수능 언어 영역 비문학 읽기의 경우, 지문은 대체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언어에서 각 1개씩 모두 6개가 단독 지문으로 제시되며, 길이는 1,200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되어 있고, 지문당 3~4개의 문항이 균형 있게 출제된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은 각 분야의 해당 내용을 균형감 있게 고루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과 문체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SAT의 경우 지문마다 길이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문항 수도 2문항에서 14문항까지 다르게 배분된다. 이처럼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지문 길이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다수의 문항을 통해 읽기 과정을 다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지문 길이의 다양성은 검사를 위해 지문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제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사용한 결과이다. 또한 하나의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지문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능 언어 영역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지문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문항의 자율적 배분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는 좋은 지문을 선정해 놓고도 일정 길이에 맞추기 위해 지문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던 기존의 언어 영역 출제 관행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평가 목표 및 요소와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위주로 하는 SAT와 달리, 수능 언어 영역은 사실적, 추론적 사고는 물론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까지 상당수 출제된다. 이에 수능 언어 영역 문항이 SAT 문항보다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SAT의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항은 수능의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며, 대부분 내용 이해의 차원에서 맥락을 통한 지문 자체의

기능과 의미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수능 '읽기'는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을 설계할 때에 흔히 외부 자료(보기, 표, 그림 등)를 활용하여 지문 내용을 다른 텍스트나 상황에 적용하는 형태로 출제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항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쓰기'의 경우를 볼 때도 SAT는 선다형 문항에서 어휘·어법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영어의 고쳐 쓰기에 치중하는 데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등의 과정도 선다형 문항으로 구안하여 제시한다. 요컨대, SAT 문항은 수능과 비교해 볼 때, 문항은 단순한 편이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에 필수적인 기초 사고 능력을 반복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능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 필수적인 평가목표 및 성취기준을 정비하여 실제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 문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항 유형 및 형식과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문항 유형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SAT 문항과 달리,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편이며 문항 간에 내용이나 형식이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SAT 문항 유형이 단순한 데에는, 물론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추론적 사고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일차적 요인인가겠지만 다른 형식적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SAT 문항은 문두와 답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문두와 답지 모두 단순하다는 장점과 함께 문두와 답지가 연이어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문 안에 특별히 기호를 달지 않고 몇 번째 행 인지를 지문 왼쪽 여백에 표시해줌으로써 문항을 풀면서 기호로 표시된 지문의 부분을 다시 찾아 읽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부정(否定) 문두가 거의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수능 언어 영역의 경우 많을 때에는 부정 문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점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언어 영역에서 부정 문두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일이다. 요컨대, SAT 문항 형식은 문항 설

계나 배열이 실제적인 읽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구현하여 가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수능이 문항 간 간섭 없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지문과 문항 배열 면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겠다.

넷째, 난이도와 관련하여 SAT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언어 영역의 경우, 난이도는 크게 지문의 난이도와 문항의 난이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AT의 지문은 수능의 지문과 비교하면 수준이 조금 높거나 유사한 편인데 비해 문항의 경우는 우리의 중3이나 고1 정도의 난이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SAT는 기존의 글에서 다소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어도 그것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발췌하여 지문으로 제시하지만, 다수의 쉬운 문항으로 읽기 과정을 재구성하여 문항을 풀면서 글을 이해하도록 돋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SAT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 언어 영역 문항과 비교하여 쉽게 느껴진다. 종합해 보면, SAT는 지문의 내용 수준을 적절히 살피며 문항을 쉽게 구성해 가면서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지문의 난이도가 문항 전체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 역시 세심하게 고려하고 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허용된 문항 풀이 시간을 통해 문항의 난이도를 추정해 보면, SAT는 에세이 쓰기를 제외하면 문항당 54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비해 수능 언어 영역은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당 88초 정도가 주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언어 영역은 늘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다. 이는 언어 영역의 문항이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서 각 문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뜻한다. 언어 영역의 문항이 고등 사고 능력을 살핀다는 긍정적 추면이 분명 있으나, 문항 풀이 시간을 자체시키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한 문항의 규모가 비대해짐으로써 문항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면에서 SAT 문항은 수능 언어 영역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¹⁰⁾ 이러한 안정성은 SAT가 문제운행 체제를 갖추고

예비검사를 통한 동등화 작업이 선행된 까닭이라 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문항 유형으로 이러한 난이도의 향상성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반복 출제가 불가능한 수능에서 이러한 점은 취하기 어렵지만 안정적 문항 유형의 설계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 유형을 체계적으로 안정화하여 구상하고 이를 출제에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밖에, SAT를 고찰하여 볼 때 수능 언어 영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다. 그동안 수능에서 객관식 검사의 한계로 평가를 미뤄 왔던 서술형 쓰기 능력에 관한 시험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SAT가 평가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세이 쓰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에세이 서술형 쓰기가 대학수학능력을 기능하는 타당성 높은 준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구상한다면 짧은 에세이 쓰기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궁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언어 영역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현재 수능 언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다루며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도 수학적 성을 측정하는 추론능력검사(Reasoning Test)와 학력을 측정하는 교과학력검사(Subject Test)로 분리하는 SAT처럼 수험생의 특성과 측정 목적에 맞게 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미국대학위원회에서는 SAT가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10) 예를 들어, 읽기 문항을 중심으로 보면 2007년에, 대략 SAT는 500 / 800점, 수능 60 / 100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인다. SAT는 전후 5년간 평균 점수의 변화 폭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수능은 평균 점수의 변화 폭이 큰 편이다.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 SAT와 고등학교 학업성적(GPA)을 함께 활용할 경우,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적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한다. SAT를 요인으로 고려 했을 때, 고교 학업성적과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적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Wayne & Gray, 2000). 그러나 SAT 시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미국 교육의 우선순위와 실질적인 수행을 왜곡하므로 대학 입학 전형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Cech, 2007) 표준화 검사를 비판해 오는 대학이나 700여 개의 단체에서는 SAT나 ACT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요컨대, SAT가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로서 신뢰도에 기반을 둔 예측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분분하고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다.¹¹⁾ 이는 대학 입학 사정 자료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미국 대학의 전통적인 배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학입학전형 자율화라는 미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은 아직까지 수능 점수를 통해 학생들을 손쉽게 선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 같은 안일하고 획일적인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전히 수능은 전 국민의 과대한 관심과 논란 속에서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통해 고통스럽게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능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여건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조금씩 그 성격이나 체제도 변화를 꾀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그 어떤 대학입학시험보다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출제 방안 연구와 개선 노력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서 매우 높은 변별도와 난이도를 가짐으로써 국내외 평가 문항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연상선상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수능 언어 영역의

11) 강승호(2007)는, 미국 대학위원회의 연구보고에서 대학 1학년 성적에 대한 SAT의 예측타당도는 중앙값으로 0.42(예측능력은 18 %)이고, 고교 내신 성적의 예측타당도는 0.48(23 %)이며, 고교 내신 성적과 SAT 점수를 합쳤을 때 예측타당도는 0.55(30 %)라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 결정과 입학생들의 졸업 비율을 향상시키는 데 SAT의 유용성이 낫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미국 대학입 학시험의 하나인 SAT를 대상으로 문항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능의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수능 문항의 질적 제고는 곧 현장 교육의 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단 현실이 그러하다면 교육과정상의 국어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따르면서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9. 2. 25.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승호(2007), 미국 SAT의 평가내용의 타당성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교육평가연구*, 20 (2), pp.125~150.
- 김동현(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력고사 언어 영역 고전문학 출제 문항 연구 : 문학과목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종철(2002), 언어 영역의 주요국 대학입학시험 문제 비교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국 대학입학시험 문제 비교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주(2005), 읽기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삼철(2006), 미국과 호주의 대입전형제도 비교 연구-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6 (3), pp.1~21.
- 박정은(2006),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상관성 연구 및 타당도 분석 : 2005학년도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송현정 외(2003),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문항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3-7*.
- 안이경(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고전문학 출제 작품 및 문항 연구 : 문학과목 교육과정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길석 · 이명애 · 시기자 · 민경석(2007), 대학입학시험 점수체계 국외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0 (2), pp.145~172.
- 이기봉(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출제 문항 분석 연구 : 1994~2005학년도의 12개년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승 · 김성훈 · 김재철 · 송현정 · 박문환 · 장경숙(2003), 문항 난이도 추정 모형 개발 연구-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03-14*.
- 이종승 · 박도순 · 이종재 · 남명호 · 김홍원 · 김정겸 · 백순근(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PRE 2004-9*.
- 정진곤(2005),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 *교육평가연구*, 18 (2), pp.149~171.
- 진체림(2006),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 : 대학수학능력 시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

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주원(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적합성 연구: 질문지와 선택지 제시 방식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Camara, W. J. & Echternacht, G.(2000), *The SAT I and High School Grades : Utility in Predicting Success in College*, Research Notes, RN-10, The College Board.
- Cech, S. J.(2007), College-Admissions Group Weighs Call to Dump SAT, *Education Week*, 27 (6), pp.8-9.
- Geiser, S. & Studley R.(2002), UC and the SAT : Predictive Validity and Differential Impact of SAT I and SAT II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Educational Assessment*, 8 (1), pp.1-26.
- Green, H. & Green, M.(2007), Admissions trends to Watch 2007-2008, (www.universitybusiness.com).
- Honawar, V.(2005), Colleges Hesitate to Embrace SAT Writing Test, *Education Week*, 24 (39), pp.1-5.
- Katz, S. & Lautenschlager, G.(2001), The Contribution of Passage and No-Passage Factors to Item Performance on the SAT Reading Task, *Educational Assessment*, 7 (2), pp.165-176.
- Klein, A.(2006), Score Drop Prompts Debate Effects of Revised SAT ; Girls Outdo Boys in Writing, *Education Week*, 26 (2), p.18.
- Lawrence, I. M. · Rigol, G. W. · Essen, T. V. & Jackson, C. A.(2003),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Content of the SAT, *College Board Report No. 2003-3, ETS RR-03-10*,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he College Board(2006), *The Official SAT Study Guide*, New York : The College Board
- The College Board(2007), *SAT Subject tests preparation booklet 2007-08*, New York : The College Board
- Wayne J. Camara & Gary Echternacht(2000), *The SAT I and High School Grades : Utility in Predicting Success in College*, Research Notes, RN-10, The College Board.
- http://www.collegeboard.com/student/testing/sat/prep_one/prep_one.html(2008. 6. 2.)

<초록>

미국 SAT 문항 분석을 통한 수능 언어 영역 개선 방향 탐색

노은희 · 박기범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미국의 SAT에서 언어 영역 관련 시험의 문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AT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시험으로서 우리 수능의 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고력을 지향하는 평가 목표가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SAT 언어 영역 시험을 분석한 결과, 수능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문의 길이가 다양했으며, 기존의 글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췌함으로써 독해 자료의 실제성과 분야별 특성을 중시하였다. 둘째, 평가 목표 및 요소가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에 치중되었으며, 어휘·어법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영어 사용 능력의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셋째, 문항 유형과 형식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간결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난이도 면에서 지문은 고교 졸업생 수준에 적합한 반면 문항은 다소 쉬운 편이었고, 문제은행을 통해 적정한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다섯째, 에세이 쓰기를 통해 실제적인 서술식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여섯째, 시험을 추론능력검사와 교과학력검사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핵심어】 대학입시, 언어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Reasoning Test, Subject Test

<Abstract>

An Analysis of the Language Section Items of SAT
in Korea and U.S.A.

Noh, Eun-hee · Park, Ki-beom

SAT(Scholastic Aptitude Test)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admissions to the U.S.A. and Korea colleges. SAT is the standardized examination similar to Korea's S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Language Section of SAT in Korea, on the basis of comparing those of U.S.A.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we particularly analyzed the critical reading items, the writing items on the SAT Reasoning Test and the literature items on the SAT Subject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passages vary in length and are taken from a variety of fields, not revising the original texts. Second, the critical reading items measure a student's literal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ability, and the writing items focus on a student's vocabulary and grammar proficiency. Third, the questions are stereotyped, repetitive, and simple. Therefore most of the students are accustomed with these types of questions and come to feel easy understanding the questions. Forth, passage difficulty is appropriate for high school students, but item difficulty is low for them. Because all of items are selected from the Item Bank according to item difficulty, the SAT can constantly maintain the degree of difficulty. Fifth, writing section includes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an essay. The essay tests students' ability to articulate a coherent argument, supporting a point of view on an issue specified on the test. Sixth, the

SAT is divided into The Reasoning Test and The Subject Test. The Reasoning Test assesses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students need for academic success in college—skills that students learned in high school. The Subject Test measures students' knowledge and skills in particular subject areas, as well as their ability to apply that knowledge.

【Key words】colleges admission, Language Section, Scholastic Aptitude Test, SAT, Reasoning Test, Subject Test